

<번역 논문>

말씀의 성전

—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 —

베른트 야노프스키(Bernd Janowski)*

김동열 번역**

1. 시편 “큰 집”

시편에 관한 그리스도적 해석이 시작된 때부터, 시편은 반복해서 그 특별한 영적 특성을 강조하는 비유와 대조로 특징 지워졌다. 이른 시기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 CE)가 마르셀리누스(Marcellin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편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며 모델이라는 견해가 나타난다. 성경의 모든 책에 있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뛰어넘어, 시편은 가장 특별한 신령한 은혜와 눈에 띄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 시편은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공통적으로 공유한 특징 외에도, 그 속에 영혼의 생기가 변화무쌍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하나님께로 방 향전환하는 회개가 특징적으로 아로새겨진 놀라운 책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거울을 보는 것같이 시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편이 묘사하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간다.¹⁾

* der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동 대학 신학부 구약학 명예 퇴임 교수. bernd.janowski@uni-tuebingen.de. B. Janowski, “Ein Tempel aus Worten: Zur theologischen Architektur des Psalters”, E.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238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279-306.

** 한신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과정 수료(Ph. D. Candidate). 현재 퍼펙터즈교회 담임목사. alexande0213@hanmail.net.

비슷한 설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9권과 10권, 또는 루터의 1528년 그의 유명한 시편 서문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그는 시편을 “그 속에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마치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책자 또는 핸드북으로 만들어지고 준비된” “작은 성경”이라 이름을 붙였다.²⁾ 시편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 원인은 루터에게 있다. 그는 시편이 인간 실존의 거울이며, 동시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증언이라 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각 사람은 그의 문제와 딱 맞아서, 마치 오직 그를 위해 세팅된 것 같은 시편과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도, 바랄 수도 없다.”³⁾ 루터는 그의 서문에 이렇게 요약했다,

... 만일 그대가 보다 생생한 색깔과 형태로 채색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작은 그림에 담아 보기 원한다면, 그대 앞에 시편을 취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밝고, 순수한 거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대는 그 안에서 당신 자신과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는 경구에 대한 정답과 하나님 자신과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다.⁴⁾

또한 거울 은유⁵⁾에 필적하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 집 은유이다. 집 은유,

1) Athanasius, *Brief an Marcellinus*, Section 10, 재인용. H. J. Seven, *Ausgestreckt nach dem, was vor mir ist: Geistliche Texte von Origenes bis Johannes Climacus* (Trier: Paulinus, 1998), 155. 다른 곳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을 “실과의 동산”이라 불렀으며, 인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마다 이곳에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Ibid., 175. 참조, Chr. Reemts, *Schriftauslegung: Die Psalmen bei den Kirchenväter*, New Stuttgart Commentary, Old Testament 33/6 (Stuttgart: Catholic Bible Work, 2000), 29-30. 보다 최근에 동산 은유는 아래의 책에 사용되었다. N. Lohfink, “Die Einsamkeit des Gerechten: Zu Psalm 1”, N. Lohfink, *Im Schatten deiner Flügel: Große Bibeltex te neu erschlossen*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1999), 163-171, 특히 163.

2) M. Luther, “Zweite Vorrede auf den Psalter” (1528), H. Bornkamm, ed., *Luthers Vorreden zur Bibel* (Frankfurt aM: Insel, 1983), 64-69, 특히 65. 참조, B. Janowski, “Die ‘Kleine Biblia’: Zur Bedeutung der Psalmen für eine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Die rettende Gerechtigkeit*,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125-164, 특히 126-127.

3) M. Luther, *Preface* (주. 2), 68.

4) Ibid., 69. J. Calvin도 *Vorrede zum Psalmenkommentar*(1557)에서 시편은 “해부경”(speculum; 역자주, 인체 내부검사용 거울)이라 언급했다: “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 책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들의 분석서라 부른다. 이 거울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느끼는 모든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E. Busch et. al., eds., *Calvin-Studienausgabe*, vol. 6: *The Psalm Commentary. A selec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21. 참조, R. Schwarz, *Calvin’s life’s work in his letters*, vol. 2 (Tübingen: Mohr Siebeck, 1909), 175-176.

즉 시편은 시편 1, 2편이 정문이고, 시편 3-150편이 내부의 방인 “큰 집”(magna domus)이라는 사상 또한 일찍이 히에로니무스(c. 347-419/420 CE)에게 있었다. 그는 그의 시편 주석 서문 – “시편에 관한 성 히에로니무스 장로의 논문”(Tractatus S. Hieronymi Presbyteri in librum Psalmorum) – 에서 시편 1편을 시편의 “큰 집”(magna domus)으로 인도하는 “대문”(grandis porta)이라 부른다:

시편서는 마치 하나의 큰 집과 같다. 이 집은 외부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방마다 개별적으로 열쇠가 있다. 비록 대문의 열쇠인 성령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방마다 그만의 작은 열쇠가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열쇠들을 뒤섞어 버린다면, 방 하나를 열려고 할 때, 열 수가 없을 것이다. 먼저 올바른 열쇠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각 시편은 마치 그 자체로 열쇠를 가진 개별적인 방과 같다. 이 집의 대문은 시편 1편이다.⁵⁾

그러므로 히에로니무스는 마치 서문과 150개의 개별 시편을 구분하듯이, 시편 1편(우리는 시편 2편을 추가함)과 전체 시편을 구별한다. 각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큰 집”과 “내부의 방들”은 각각 별개로 “열” 수 있다 – 필자는 이 은유를 바탕으로 이 “집”의 신학적 구조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II). 시편이 돌이 아닌 ‘말씀의 성전’이라는 사실은(III) 그 고유한 언어와 구조와 명백한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아래에서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2.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

시편의 신학적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필자는 시편 1편과 2편이 “문”을 이루고 있다는 잘 알려진 사실로 시작해 보겠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시편의 “큰 집”을 통과하기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간다(II/1). 현관 입구 뒤에는 – (구체적) 이미지로 머물고 있는 – “내부의 방들”이 보인다. 그 뒤로 개별 시편, 시편 그룹 및 일부 수집물의 “문”이 열려 있고, 찬양과 탄원, 삶과 죽음, 스울과 성전, 질서와 혼돈, 다윗과 시온, 신화와 역사, 또는

5) 거울과 동산 은유(참조, 위의 주. 1) 외에도 예를 들어 카씨오도르(Cassiodor)의 “시편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寶庫)이다(Liber psal morum totius scripturae divinae thesaurus)”(CC 98,647)와 같이 “보고”(寶庫, thesaurus) 은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6) 참조, Chr. Reemts, *Schriftauslegung*, 23, 34. 교부들의 시 1-2편 해석에 관해서는 J. T Willis, “Psalm 1– An Entity”, *ZAW* 91 (1979) 381-401, 특히 387-391을 보라.

창조와 구속과 같은 광범위한 연관성을 관찰자에게 보여준다(II/2). 마치 그 집을 지탱하는 “마감석”과 같이 맨 끝에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이 있다. 이 시편에서 “모든 호흡”(시 150:6)이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서 시편은 강렬하고 “우렁차게” 끝난다(II/3).⁷⁾

2.1. 시편의 입구(시 1-2편)

누구든지 시편을 열어서 시편 1편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시편들과는 다른 텍스트를 만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나 찬송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념적인 어법으로, 즉 의인과 악인의 대조법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즉 나무와 겨의 이미지로 그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다.⁸⁾ 바로 시편 2편을 이어서 읽으면 머리글은 없지만 맺음말은 있는 본문을 만나는데, 이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의인의 길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7) 아래를 참조하라. F. Hartenstein의 ““Wach auf, Harfe und Leier, ich will wecken das Morgenrot” (Psalm 57:9) – Musikinstrumente als Medien des Gotteskontakt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M. Geiger and R. Kessler, eds., *Musik, Tanz und Gott: Tonspuren durch das Alte Testament*, SBS 207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7), 101-127, 특히 118-123; E. Zenger, ““Aller Atem lobe JHWH!”: Anthropologische Perspektiven im Hallel Ps 146–150”, M. Bauks, K. Liess, and P. Riede, eds., *Was ist der Mensch, daß du seiner gedenkst? (Psalm 8,5): Aspekte einer theologischen Anthropologie*, FS.(역자주: 기념논문집) B. Janowski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565-579와 301-303. 아래 시편 본문의 한글 번역은 『개정개정』을 따랐다.

8) 아래를 참조하라. B. Weber, *Psalm 1 und seine Funktion der Einweisung*, FS. J. H. Schmid (Riehen – Basel: arteMedia, 2005), 175-212; J. H. Schmid, “Psalm 1 als Tor zur Tora JHWHs: Wie Ps 1 (und Ps 2) den Psalter an den Pentateuch anschließt”, *SJOT* 21 (2007) 179-207;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Psalm 1 als Tor zum Psalter”, B. Janowski,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99-218.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악인의 길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편)	} 두 길
...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 2편)	} 왕의 길 // 땅의 심판자 (참조, 1-3절)

시편 1편과 2편은 축복을 통해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여러 키워드를 통해서도 서로 연결된다. 시편 1편이 완전한 시편의 특징인 “생명의 길”(의인과 악인)(הַיָּשָׁר , 6절) 이미지로 끝나는 한편, 시편 2편에서는 땅의 왕들과 재판관들이 그들의 멸망의 길에 대해 경고했다(הַיָּשָׁר , 12절). 그리고 시편 1, 2편에 따라 의인이 밤낮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는”(הִתְחַלֵּץ) 동안, 시편 2:1에 따라 열방은 “헛된 생각”($\text{חֵלֶם וְהִתְחַלֵּץ}$)을 하기” 때문에 “헛된 계획”을 세운다.⁹⁾ “원수들” 모티프는 시편 2편(1-5, 8-12절)과 시편 3편(1-8절)을 연결하고, 이것은 차례로 시편의 제1권을 연결한다(시 3-41편). 여기 시편 3-14편이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모티프로 시작한다(시 3:9; 14:7).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중요 개념과 기본 모티프는 “중첩되어 있거나, 서로 겹쳐서” 있게 되어,¹⁰⁾ 사람이 한 차원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전환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¹¹⁾

9) 시 1편과 2편에서 대조되는 모티프로서의 ‘하가’(הָגָה)의 기능에 대해서는 F. Hartenstein, ““Der im Himmel thronet, lacht” (Ps 2:4): Psalm 2 im Wandel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r Kontexte”, D. Sanger, ed., *Gottessohn und Menschensohn: Exegetische Studien zu zwei Paradigmen biblischer Intertextualitat*, Biblical-Theological Studies 67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58-188, 특히 175.

10) N. Lohfink, “Psalmengebet und Psalterredaktion”, *Archiv fur Liturgiewissenschaft* 34 (1992) 1-22, 특히 12.

11) 또한 아래를 참조하라. J. T. Willis, “Psalm 1– An Entity”, 391-393 및 마지막으로 B. Weber, ““Herr, wie viele sind geworden meine Bedranger...” (Ps 3:2a): Psalm 1-3 als Ouverture des Psalters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von Psalm 3 und seinem Prask”, E. Ballhorn and

시편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표제와 모티프의 연결(*concatenatio*)로 설명했다.¹²⁾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개별 진술의 구체성이 증가한다. 즉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묘사한 내용을 시편 3편에서는 “(궁지에 몰린) 기도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대적”의 대조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메시아가 행하는 일(시 2:9)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다(시 3:8). 또한 시편 2, 3편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내용이 시편 1:4-6에서는 – 적어도 칠십인역 본문에서는 –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¹³⁾ 키워드 연결에 의해 모든 진술들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된다. 즉 이미지와 모티프의 중첩¹⁴⁾을 촉진함으로써, 더 큰 의미적 연관성을 드러낸다. 시편 1-2편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관성을 살펴보겠다.

- 1:1; 2:12의 **축복** 주제는 다윗의 시편 제1권(시 3-41편)의 끝 40:5와 41:2,¹⁵⁾ 그리고 더욱이 시편의 끝부분인 시편 144:15와 146:5까지 전개된다.
- (여호와와) “율법”(시 19:8; 37:31; 40:9; 78:1, 5, 10; 89:31; 94:12; 105:45, 그리고 119편[25회]), “의인과 악인”(시 6; 27; 37; 57; 63; 71; 91; 92; 141편 등) 및 “(인생) 길”(시편에서 66회)의 **중심 주제와 모티프**가 등장한다.
- 뿐만 아니라 서론인 시편 1-2편과 결론인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이 시편 전체 주제 메시지의 **뼈대**를 이룬다.¹⁶⁾

로펑크(N. Lohfink)는 키워드와 모티프 연결이라는 현상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모든 것은 통찰력과 더 넓은 이해를 위한 개방적 관점을 제

G. Steins, eds., *Der Bibelkanon in der Bibelauslegung: Methodenreflexionen und Beispiele* (Stuttgart: Kohlhammer, 2007), 231- 251을 보라.

12) 아래를 참조하라. N. Lohfink, “Psalmengebet und Psalterredaktion”, 7-13; E. Zenger, *Psalmenforschung nach H. Gunkel und S. Mowinckel*, VTS 80 (Leiden - Boston - Köln: Brill, 2000), 399-435, 특히 419-422. 그리고 이 책 속 챕터(E. Zenger)의 기고 논문을 보라.

13) 이에 관해서는 B. Janowski and F. Hartenstein, *Psalmen 1-50*, BKAT 15, 개정판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제1장을 보라.

14) 이미지와 모티프의 중첩은 새로운 입체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 아래의 논문을 보라.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13-21. 그리고 A. Wagner, *Der Parallelismus membrorum zwischen poetischer Form und Denkfigur*, A. Wagner, ed., *Parallelismus membrorum*, OBO 224 (Fribourg: Academic Pres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26, 특히 8-18, 22-26.

15)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16)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3. 시편의 결말(시 146-150편)’을 보라.

공한다. 평면적인 텍스트가 다차원적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독자는 시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편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시편 1편은 악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악인에 대한 호칭(“악인”, “죄인”, “조롱하는 자”)을 통해 악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차원, 즉 다윗의 시편 제1권(시 3-41편) 전체 맥락에서 훨씬 더 많은 언급들을 찾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시편 1편과 시편 37:30-31¹⁸⁾ 사이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델리취(F. Delitzsch)가 이미 지적했듯이, 시편 1, 2편과 다윗 시편 전체에서 ‘아슈레(אֲשֻׁרֵי)’ 공식이 구조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개의 아슈레(1:1; 2:12)와 함께 시작해서, 두 개의 아슈레(40:5; 41:2)와 함께 시편 제1권이 끝난다.”¹⁹⁾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 1:1).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시 2:12).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시 40:4).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시 41:2).

시편 1:1과 시편 40:5와의 관계는 특히 명확하다. 두 시편 모두 몇 가지 차이²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과의 구별은 “소수자의 집단 의식”²¹⁾을 표

17) N. Lohfink, “Psalmengebet und Psalterredaktion”, 12. 참조, N. Lohfink, “Der Psalter und die christliche Meditation: Die Bedeutung der Endredaktion für das Verständnis der Psalmen”, *BK* 47 (1992), 195-200, 특히 199.

18)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시 37:30, 31, 시 1편에 해당하는 어휘와 어구에 대한 강조와 함께). 참조, B. Weber, “Der Beitrag von Psalm 1 zu einer ‘Theologie der Schrift’”, *Jahrbuch für Evangelikale Theologie* 20 (2006), 83-113, 특히 100-101.

19) F. Delitzsch, *Die Psalmen* (Leipzig: Dörflin & Franke, 1894), Reprinted (Gießen: Brunnen, 2005), 66. 참조, B. Weber, *Psalm 1 und seine Funktion der Einweisung*, 190-191 및 J. M. Auwers,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Un état de la question*, Cahiers de la RB 46 (Paris: Gabalda, 2000), 130-133. 다윗의 시편 제1권(시 3-41편)에서는 시 1:1; 2:12; 40:5와 41:2 외에 시 32:1; 32:2; 33:1; 34:9에 축복문이 4개 더 있다. 참조, J. C. McCann,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P. W. Flint and P. D. Mille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 99 (Leiden-Boston: Brill, 2005), 340-348.

현한다. 또한 시편 41:2와 수많은 차이점²²⁾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유사점이 있다. 특히 시편 41:4-10의 원수에 대한 묘사에서 말하듯이, “가난한 자”는 그의 원수들, 이웃, 믿을 수 없는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 | | |
|---|--|
| <p>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p> <p>5 <u>나의 원수</u>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p> <p>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p> <p>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p> <p>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p> <p>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u>나의 가까운 친구</u>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p> <p>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²³⁾</p> | <p>원수: 이웃,
친척</p> <p style="text-align: center;">↓</p> <p>믿을 수 없는
친구</p> |
|---|--|

시편 41편에서 병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들의 공격과 배신을 겪었지만, 여호와의 은혜로운 돌봄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시편 41:1의 메시지는 원수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 | | |
|--|---|
| <p>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p> <p>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p> <p>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들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p> | <p>명백한 축복
—를 통해:</p> <p style="font-size: 2em;">}</p> <p>원수의 괴롭힘</p> <p style="font-size: 2em;">}</p> <p>질병</p> |
|--|---|

20) 이에 관해서는 G. Barbiero, *Das erste Psalmenbuch: Eine synchrone Analyse von salm 1–41*, ÖBS 1 (Frankfurt a.M.-Berlin-Bern: Peter Lang, 1999), 51-54를 보라.

21) Ibid., 53.

22) 이에 관해서 Ibid., 59-62를 보라.

23) 이에 관해서는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180-193을 보라.

우리의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편 1:1-3과 41:2-4, 즉 두 “모퉁이돌 시편”의 첫 번째 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와 의 율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복된 길로 제시한다. 시편 41편에서는 가난한 자(41:2, מְשֻׁכָּל אֶל-דָּל)를 돌보는 것을 복된 길로 제시한다. 이러한 평행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구약 율법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하나님 경험과 일맥상통한다.²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러한 관심은 시편 41:4-10이 묘사된 듯이 원수, 이웃,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이 우위를 점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절실했다(시 41:8!).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원수들과 일치하는 악인, 죄인,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며, 복된 사람은 그들의 삶의 규범과 거리를 둔다. – 시편 1편은 사실 악인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참조, 시 1:4) – 그러나 다윗의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시편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통해 프로그램적 힌트를 제공한다. 이 힌트는 시편 41편에서 구체화되고, 다윗 시편 전체의 원수에 대한 묘사에게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편 제1권의 시작과 끝 사이에 신학적 순례 여정이 제시된다는 인상”²⁵⁾을 받게 된다. 시편 1편은 이 여정의 문을 열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머지 내용을 모두 해석해야 한다. 즉 시편 1-2편은 복된 삶, 의인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편 40-41편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두 쌍의 시편은 “다양하면서 전형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적인’ 삶의 상황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 in mundo coram deo*)”²⁶⁾을 다룬다. 이 두 쌍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시편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특히 시편 제1권(시 3-41편)과 제2권(시 42-72

24) G. Barbiero, *Das erste Psalmenbuch*, 61.

25) Ibid., 62.

26)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Untersuchungen zu Komposition und Redaktion der theokratischen Bücher IV-V im Psalter*, ATANT 83 (Zürich: TVZ, 2004), 102. 아래의 논의를 참고하라. Ibid., 95-102; F. 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B 29 (Würzburg: Echter, 1993), 12-14.

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시편서 전체를 통해 “재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브루그만(W. Brueggemann)²⁷⁾에 의하면 후기 지혜시 73편으로 시작하는 시편 제3권(시 73-89편)이 율법이라는 말²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율법 주제를 실제로 채택했다. 즉 시편 1편에서 대조적으로 제시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행위-결과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로운) 자가 (사악한)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계시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²⁹⁾ 죽음과 쇠퇴는 “쇠퇴/전환의 책”³⁰⁾인 시편 제3권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 또한 이스라엘³¹⁾과 연관된 것이다. 이처럼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을 여는 시편으로 개인의 경험과 민족의 운명을 바탕으로 “지혜의 위기”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시편 73-83편인 아삽의 시편에서 “개인적 위기 인식과 집단적 위기 인식은 중첩되어 나타난다. 두 가지 위기 경험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임재의 ‘장소’와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³²⁾ 시편 73-89편의 끝에서 독자는 역사신학적으로 다윗 왕국의 멸망(시 89편)을 묘사하는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이러한 위기에서의 탈출구로서 여호와와 왕권과 세상을 채우는 정의(시 93-100편)라는 프로그램적 대안을 불러일으킨다. 시편 73-89편과 시편 93-10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위기와 고통에 대한 묵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

시편 제1권(시 3-41편)이 제2권(시 42-72편)에서 제3권(시 73-89편)³³⁾으

27) W. Brueggemann, “Bounded by Obedience and Praise: The Psalms as Canon”, JSOT 50 (1991) 63-92.

28) 토라(תּוֹרָה)라는 말은 시 73-89편 안에서는 시 78:1, 5, 10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시 89:31에 나온다.

29)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보라.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51–100*, HTKA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0), 330-335; B. Janowski and K. Liess, “Gerechtigkeit und Unsterblichkeit: Psalm 73 und die Frage nach dem ‘ewigen Leben’”, R. Hess and M. Leiner, eds., *Alles in allem: Eschatologische Anstöße*, FS. J. C. Janowsk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5), 69-92.

30)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 ein Versuch”, *Biblica* 88 (2007) 305-325, 특히 309.

31) 시 73:1에서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51–100*, 332, 353을 참조하라.

32) Ibid., 354.

33) 탄원에서 찬양으로 가는 중에(아래 ‘2. 신학적 순례 여정 a) 탄원에서 찬양으로’를 보라), 시편서 제3권은 일종의 접합부이며, 시 78편은 아마도 시편의 중심일 가능성이 있다. 참조,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 ein Versuch”, *passim*(역자주: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의 라틴어); M. Millard, “Die ‘Mitte des Psalters’: Ein möglicher Ansatz

로, 그리고 이어서 제4권(시 90-106편)과 제5권(시 107-145편)으로의 내적 전환(transition)을 보여주는 예는 시편서 전체가 전형적인 삶의 정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순례 여정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³⁴⁾ 이 여정의 구조와 계획에 대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2. 신학적 순례 여정(제1-5권)

다섯 권의 시편서³⁵⁾가 신학적 순례 여정을 나타낸다는 인상은 우선 시편서의 거시구조적 구성 기법에 근거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이것은 표제, 송영적 결론(시 41:14; 72:18-19; 89:53; 106:48) 뿐 아니라, 서론(시 1-2편)과 결론부 할렐루야(시 146-150편)로의 프레임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한편으로는 “지혜 토라”(시 1편)와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왕권”(시 2편)이라는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시 146-150편)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세주와 함께 하는 삶의 실제적 지평을 설정한다. 이 프레임은 이 책에 수집된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용하면 “한편으로는 죽음의 권세와 권능에 맞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힘을 준다...”³⁶⁾

또한 시편서 다섯 권의 신학적 순례 여정으로서의 특징은 시편의 시적 구조에 관한 관찰에 근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의 논문 “시편의 시들”에서 세이볼트(K. Seybold)³⁷⁾는 – 보다 좁은 의미로 본문의 구조와 대조하

einer Theologie der Hebräischen Bibel”, E. Ballhorn and G. Steins, eds., *Der Bibelkanon in der Bibelauslegung*, 252-260.

34) 이에 관해서는 또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93-123을 보라.

35) Book I: 시 3-41편; Book II: 시 42-72편; Book III: 시 73-89편; Book IV: 시 90-106편; Book V: 시 107-145편. 아래의 논문을 보라. J. M. Auwers,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77-108,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시편 제5권의 마지막 시편으로서 시 145편에 관한 그의 기고 논문. 또 E. Zenger, “Das Buch der Psalmen”,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ohlhammer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2008), 348-370, 특히 355; E. Zenger, ““‘Aller Atem lobe JHWH!’”, 567, 주 8을 함께 보라;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101-150*, HTKAT (Freiburg-Basel-Vienna: Herder, 2008), 789-807. 그리고 대안적 입장(the alternative positions)을 가지고 있는 E. Ballhorn, *Das Telos des Psalters: Der Text-zusammenhang des Vierten und Fünften Psalmenbuches* (Ps 90-150), BBB 138 (Berlin – Wien: Philo, 2004), 294-297 and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338, 주. 252를 보라.

36) E. Zenger, “Der Psalter als Buch: Beobachtungen zu seiner Entstehung, Komposition und Funktion”, E.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BS 18 (Freiburg-Basel –Wien: Herder, 1998), 1-57, 특히 31-32.

37) K. Seybold, *Poetik der Psalmen* (Stuttgart: Kohlhammer, 2003).

여 - 그가 “텍스트 세계”³⁸⁾라 부르는 것의 수많은 예를 제공했다. 어떤 텍스트의 “세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온 시편³⁹⁾에서처럼 성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개인 감사사에서처럼 사람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회고하는 일과 같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관점을 의미한다.⁴⁰⁾ 그뿐 아니라 또한 은유적 언어와 “생산적 모호성”과 “유연성”⁴¹⁾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세계는 시공간적인 의미를 가지며, 비유, 상징, 은유 등을 사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이다. 호스펠트(F.-L. Hossfeld),⁴²⁾ 브라운(W. P. Brown)⁴³⁾ 및 헤케(P. Van Hecke)⁴⁴⁾가 눈에 띄게 강조한 은유에 본질적인 것은 개별적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폐지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⁴⁵⁾ 예를 들어 추상적인 “왕국”은 “보좌”라는 구체적인 상징으로 표현되거나(시 47:9; 93:2 등) 추상적인 “생명”은 “나무”라는 구체적인 상징으로 표현된다(시 1:3; 52:10; 92:13-16):

구체적인 것	나무	보좌	산	← 상징화
추상적인 것	생명	왕국	하나님의 처소	

38) Ibid., 193-227을 보라.

39) 이에 관해서는 아래 하우게(M. R. Hauge)가 성전과 스올의 공간 개념을 비교한 내용을 보라.

40) 이에 관해서는 아래 ‘b) 스올과 성전 사이 - 우주적인 측면’을 보라.

41) 이에 관해서는 B. Janowski, “Die ‘Kleine Biblia’”, 137-141을 보라. 또한 시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W. P. Brown,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2); B. Janowski, “De profundis: Tod und Leben in der Bildsprache der Psalmen”,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244-266; K. Seybold, *Poetik der Psalmen*, 193-212.

42) F. L. Hossfeld, “Die Metaphorisierung der Beziehung Israels zum Land im Früh-judentum und im Christentum”, F. Hahn, u.a., eds., *Zion-Ort der Begegnung*, FS. L. Klein, BBB 90 (Bodenheim: Athenaeum, 1993), 19-33.

43) W. P. Brown, *Seeing the Psalms*, passim(역자주,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다).

44) P. Van Hecke, ed., *Metaphor in the Bible*, BETL187 (Leuven: Peeters, 2005), 또한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21-35를 보라.

45) 무엇보다 이 논문들을 보라. O. Keel, *Altorientalische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Using the example of the Psal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8-9, 21-39. 또한 O. Keel, *Das Recht der Bilder gesehen zu werden: Drei Fallstudien zur Methode der Interpretation altorientalischer Bilder*, OBO 122 (Fribo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267-273; O. Keel and C. Uehlinger, *Göttinnen, Götter und Gottessymbole: Neue Erkenntnisse zur Religionsgeschichte Kanaans und Israels aufgrund bislang unerschlossener ikonographischer Quellen*, QD 134 (Freiburg-Basel-Vienna: Herder, 2001), 13-14; B. Janowski, “Das biblische Weltbild: Eine methodologische Skizze”, B. Janowski and B. Ego, eds., *Das biblische Weltbild und seine alt-orientalischen Kontexte*, FAT 32 (Tübingen: Mohr Siebeck, 2001/2004), 3-26, 특히 13-15.

상징화 행위는 구체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비물질적인(추상적인) “왕권”개념을 물질적인 의미(보좌라는 구체적인 “대상”)로 변환하고, 이를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징 체계에 맞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⁴⁶⁾

시편서의 신학적 구조를 질문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예는 **인간학** (탄원/찬양), **우주론** (스울/성전), **역사 신학** (다윗/시온)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적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나 모티프에서 서로 겹치거나 서로 유사점을 공유한다.

2.2.1. 탄원에서 찬양으로 – 인간학적인 측면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누가 시편의 역사신학에 대해 묻는다면, 시편의 구조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따른다.⁴⁷⁾ **시편서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흥망성쇠를 보여주듯이, **개별 시편 본문의 프레임**과 특히 개인 시편(KE 및 DE; 역자주, KE와 DE는 각각 *Klagelieder des Einzelnen*, *Danklieder des Einzelnen*의 약자이며, 각각 개인 탄원시와 개인 감사시를 말함)에서 기도하는 자는 (위협적인) 죽음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가는 극적인 여정을 보여준다. 폰 라트(G. von Rad)는 삶의 적대감, 질병 및 정의가 부정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고통을 다루는 신학적 인간학을 “이스라엘의 응답”⁴⁸⁾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의 말씀과 행동에 반응하고, 코람 데오(Coram Deo)에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삶이다.

이 입장을 더 발전시켜 최근 시편 연구는 탄원과 찬양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기도의 형식 때문에 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⁴⁹⁾ 수많은 탄원시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기엔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찬양(의 책)(תְּהִלִּים [סִפְרָא])⁵⁰⁾이라는 독특한 책으로 불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신학의 기본적 형태이기 때문이며, 또 구약성경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

46) B. Janowski, “Die ‘Kleine Biblia’”, 22-23. 그리고 K. Seybold, *Poetik der Psalmen*, 227을 보라.

47) 이에 관해서는 아래 ‘2.2.3. 다윗에서 시온으로 – 역사신학적인 면’을 보라.

48) 이에 관해서는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vol. I (Munich: Chr. Kaiser, 1992), 366-473을 보라.

49) 이에 관해서 J. M. Auwers,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109-112도 보라.

50) 이에 관해서는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 ein Versuch”, 310-312의 주를 보라. 이와 관련하여 시 72:20(즉, 시편 제2권의 끝 부분)에서 “다윗의 애가”가 끝났다는 편집자의 주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제4권, 제5권은 시 90:1에서 “모세의 탄원 기도 (!)”로 시작된다.

님에 대한 찬양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존재 형태”⁵¹⁾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의 자기 절대화는 상대화되고, 하나님-인간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하심은 모든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을 포용한다(참조, 시 146-150편).⁵²⁾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인 “왜/무엇을 위해?” 그리고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을 불러 일으키는 개인 탄원시조차도 “하나님과의 갈등 대화”로서 인간의 삶은 오직 코람 데오(coram Deo)의 삶일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양분으로 만들어진다. 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맞서 싸운다. 시편 13편의 모범적인 예처럼, 작품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탄원은 하나님 찬양으로 이어지고, “(고난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께 그들이 호소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⁵³⁾ 탄원은 “고통의 자기 표현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고통의 반전**에 관한 것이다.”⁵⁴⁾

I.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 표제
	1a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b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 기원
	2a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b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51)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81. 참조, 계속 이어지는 인용문도 보라: “찬양과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 것은 삶과 죽음처럼 서로 대립한다.” 또한 이 논문도 보라.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328-330. 그리고 그 아래 303-304를 보라. 시 146:1b-2에 관한 것이다.

52) 이에 관해서는 아래 ‘3. 시편의 결말(시 146-150편)’을 보라.

53) C. Westermann, “Die Rolle der Klage in d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C. Westermann,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Gesammelte Studien II* (Munich: Chr. Kaiser, 1974), 250-268, 특히 255; C. Marksches, ““Ich aber vertraue auf dich, Herr!”: Vertrauensäußerungen als Grundmotiv in den Klageliedern des Einzelnen”, *ZAW* 103 (1991), 386-398. 따라서 사람은 탄원시를 통해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탄원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르크쉬스(Marksches)에 의하면 “목표지향적 신뢰 패러다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인간의 신뢰를 요구한다.

54) C. Westermann, “Die Rolle der Klage in d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255(필자에게 중요함).

II.	3a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기원
	b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a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부탁
	b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III.	5aαβ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신뢰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ay.b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서원

시편 13편에서 이러한 반전은 1절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3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외침에서, 마지막으로 5절의 “주(!)의 사랑”//“주(!)의 구원”이라는 신뢰 표현에서 완성되는 **신뢰의 상승 라인**(*aufsteigende Linie des Vertrauens*)으로 표현되었다: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 5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신뢰의 상승 라인은 불만의 하강 라인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증가하는 신뢰		감소하는 탄원	
↓	여호와 1	↓	탄원 1-2
	여호와 내 하나님 3		부탁 3-4
▼	주의 사랑//구원 5	▼	신뢰/찬양 서원 5

시편의 신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시편 13편과 다른 탄원시는 개별적인 텍스트 구조를 통해 어떻게 탄원에서 찬양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는 전체 시편의 큰 흐름에도 적용된다. 이를 테면 1-2절: “어느 때까지”→ 5ay.b절: “기뻐하리이다”와 같은 것이 시편의 전체 흐름을 광범위하게 결정한다: 시편 기자는 불평으로 시작한다. 시편은 박해(시 3; 18편; 35:1-6 등), 신정론(시 5; 7편 등), 원수(시 55-59편 등), 질병(시 6; 38; 41편 등), 생명의 위협(시 22; 88편

등), 죄책감(시 32; 51편 등), 사망(시 39; 90편 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 시편 89/90편을 기점으로 – “창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Geschichte)와 관련된”⁵⁵⁾ **하나님 찬양**으로 끝맺는다. 무엇보다 다윗의 시편 제1권(시 3-41편)과 제2권(시 51-72편)이 대표하는⁵⁶⁾ 첫 시작과 결론 시편 146-150편이 그 “우렁찬” 목표를 이루는 이 종결부 사이에, **인간의 조건** (*conditio humana*)의 다양한 모습, 즉 고난, 기쁨, 슬픔, 죄, 용서, 희망 등이 시편에 담겨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찬양으로 이어진다. 시편에는 수많은 불평과 탄원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찬양의 성전”⁵⁷⁾이며, 이러한 특징은 시편의 독특한 언어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서 시작한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가올 일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열려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찬양의 말은 또한 간청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찬양은 찬양과 모순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는다. 하나님 찬양은 미래에서 온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⁵⁸⁾

이 주제를 더 탐구하기 전에,⁵⁹⁾ 잠시 멈추고 하나님 찬양의 실제적의 의

55) F. L. Hossfeld, “Von der Klage zum Lob – die Dynamik des Gebets in den”, *BK* 56 (2001), 16-20, 특히 18.

56) 그러나 “다윗 시편 제1권의 탄원의 바다에서 ... 찬양의 섬들”(Ibid., 18)이 있다. 예를 들어, 하위 모음집인 시 3-14편 중 “찬양의 중심은 억압받는 기도의 탄원으로 둘러싸인 시 8편의 왕의 찬송이다”(Ibid.). 그것이 시 8편이, 탄원과 간청의 기도로 구성된 시 3-14편의 하위 모음집의 중심 또는 절정으로서, 성서적 인간상의 추상적이고 맥락 없는 초안을 형성하지 않는 이유이다(참조, 시 8:5의 기본적인 질문). 그러나 탄원과 간청의 기도 속에서 시 3-7편(고난 받는 자로서의 개별적인 시)과 9-14편(사회적 그룹으로서의 “가난한 자”)이 말하는 공통에 적용된다는 소망의 구체적 메시지는 아래의 논문을 보라. F. Hartenstein and B. Janowski, “Psalmen/Psalter I - III”, *RGG* 4/6 (2003), 1761-1777, 특히 1771. 그리고 이 책에서 F. Hartenstein의 기고논문을 보라. 동일한 것이 중심 시 19편과 함께 하위 모음집인 시 15-24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논문도 보라.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97-98. 그리고 이 책 속에 브라운(W. P. Brown)의 기고 논문을 보라. 이 구성 원리는 처음부터 시편 안에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신학적 대위법을 설정한다. 끝으로 갈수록 이 길은 더욱 더 넓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57) H. Spieckermann, “Der theologische Kosmos des Psalters”, *Berliner Theologische Zeitschrift* 21 (2004), 61-79, 특히 79.

58) E. Ballhorn, *Das Telos des Psalters*, 372. 참조, Ballhorn, “Die gefährliche Doxologie: Eine Theologie des Gotteslobs in den Psalmen”, *Bibel und Liturgie* 77 (2004), 11-19.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F. L. Hossfeld, “Von der Klage zum Lob”, 19와 H. Spieckermann, “Der theologische Kosmos des Psalters”, 61-62도 보라.

미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2. 스올과 성전 사이 - 우주적인 측면

인간학적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또는 성전신학적 차원에서의 전환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과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은 시편의 답변은 놀랍도록 명확하다: 즉 하나님, 성전/시온,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⁶⁰⁾ 단지 이 관계가 본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인 감사 시편의 특징인 **죽음에서 삶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겠다.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공간적인 과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피안(죽음)을 차안(삶)과 연결한다 - 그리고 이는 여호와와의 구원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와는 피안에 있는 “죽은”⁶¹⁾ 자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끌어내” 준다.

시편 18:3-6

	공간개념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
4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 스올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6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 성전에 계신 하나님

59) 이에 관해서는 아래 ‘3. 시편의 결말(시 146-150편)’을 보라.

60) 참조, H. Spieckermann, “Der theologische Kosmos des Psalters”, 68-73.

61) 개인 시편에서 특정한 죽음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라. C. Barth, *Die Errettung vom Tode: Leben und Tod in den Klage- und Dankliedern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ed.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7); K. Liess, *Der Weg des Lebens: Psalm 16 und das Lebens- und Todesverständnis der Individualpsalmen*, FAT II/5 (Tübingen: Mohr Siebeck, 2004); G. D. Eberhardt, *JHWH und die Unterwelt: Spuren einer Kompetenzausweitung JHWHs im Alten Testament*, FAT II/2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222-236; B. Janowski, “Der Gott Israels und die Toten: Eine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Skizze”, B. Janowski, *Die Welt als Schöpfung*, 266-304, 특히 279-286.

시편 30:1-3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찬양으로의 요구: 기도하는 사람의 구출
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를 위한 절규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שִׁמְשִׁי)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에서 끌어올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시편 30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축 두레박처럼 스올에서 “끌어올리셨고”(לָחַד, 피엘형 1절)⁶²⁾, 피안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건져 올리셨다”(עָלָה, 히필형 3a절. 참조, 욥 2:6b 등). 이와 함께 그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יָרַד, 3b절), “그를 살리셨도다”(חָיָה, 피엘형).

시편 18:4-6; 30:2-4, 그리고 다른 본문⁶³⁾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 아래(스올)에서 위(성전)까지 – 끌어올려지는 구조 과정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이, 개인 감사시인 시편 116편⁶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 시편은 두 번째 부분(12-19절)에서 수평적 방향성을 가진 공간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긴 본문에서 구원 내러티브와 감사-제사 보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원 내러티브

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스올
4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שִׁמְשִׁי)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공간 개념

62) 그 과정을 위해서는 출 2:16, 19 그리고 K. Seybold, *Poetik der Psalmen*, 206을 보라.

63)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에서 본문과 용어의 모음집을 보라. C. Barth, *Die Errettung vom Tode*, 98-116; K. P. Adam, *Der Königliche Held: Die Entsprechung von kämpfendem Gott und kämpfendem König in Psalm 18*, WMAN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49, 55-66; B. Ego, “Die Wasser der Gottesstadt: Zu einem Motiv der Zionstradition und seinen kosmologischen Implikationen”, B. Janowski and B. Ego, eds., *Das biblische Weltbild und seine altorientalischen Kontexte*, 226, 주. 17 외.

64) 이에 관해서는 B. Jasnowski, “Dankbarkeit: Ein anthropologischer Grundbegriff im Spiegel der Toda-Psalmen”,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267-312, 특히 274-287. 그리고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101–150, 291-302(F. L. Hossfeld)를 보라.

- | | |
|--|--|
| <p>5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p> <p>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p> <p>7 내 영혼(שׁוֹנֵה)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p> <p>8 주께서 내 영혼(שׁוֹנֵה)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p> <p>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p>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4em; margin-right: 10px;">}</div> <div> <p>죽음으로부터의 구원</p> <p>“건지다” →
“행하다”</p> <p>↓</p> <p>“여호와 앞에” //
생명이 있는 땅에서</p> </div> </div>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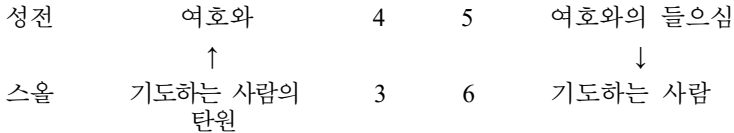
감사제 보고

- | | |
|---|---|
| <p>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p> <p>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p> <p>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p> <p>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p> <p>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p> <p>18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p> <p>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와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p>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4em; margin-right: 10px;">}</div> <div> <p>성전에서의
감사-제사</p> </div> </div> |
|---|---|

이 글의 공간 개념을 고려할 때, 하우게(M. R. Hauge)의 말처럼 이 시편을 “대조적인 장소의 신성한 지형”⁶⁵⁾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5) M. R. Hauge, *Between Sheol and Temple: Motif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I-Psalms*, JSOTSS 1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81-287. 구약성경에서 지하세계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제 K. Liess, ““Hast du die Tore der Finsternis gesehen?” (Ijob 38,17): Zur Lokalisierung des Totenreiches im Alten Testament”, A. Berlejung and B. Janowski, eds.,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FAT I/64 (Tübingen: Mohr Siebeck, 2009), 397-422를 보라.

은 스올(3절)에서 산 자의 땅(9절)을 거쳐 여호와와 집 뜰(19절)까지 이끄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재앙에서 점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극적인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시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난에서 구원으로의 극적인 경로를 점진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시편 116:3-9는 스올(3-4절)에서 시작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5절)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동선을 구축한다. 하나님은 위(=성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개입을 통하여 “낮은 곳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6b α 절)과의 거리를 극복하시고(6b β 절. 참조, 8절), 그에게 산 자들의 땅(9절)⁶⁶에서 그분 앞에 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יְהוָה 히트파엘) 분이다. 과거와 관련된 구원 내려티브(3-6절)는 아래(스올)로부터 위로(3-4절), 또 위(성전)로부터 아래로(5-6절), 이렇게 양방향의 수직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한다:



구원을 얻은 후(7-8절), 기도하는 사람의 길은 “안식”의 장소(7절)에서/“산 자의 땅”(9절)에서 “여호와와 집 뜰”(19절)로 산 자의 땅→예루살렘→성전의 안뜰의 세 동심원과 함께 수평 방향에서 이어진다. 이 세 동심원은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와의 교제로 점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공간적으로 묘사한다.⁶⁷ 시편의 끝에서 스올에서 성전까지 먼 길을 걸어온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다시 그의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백성 앞에서”(18b절. 참조, 14a절)⁶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한다.

66) 참조, H. Tita, *Gelübde als Bekenntnis: Eine Studie zu den Gelübden im Alten Testament*, OBO 181 (Fribo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12-113, 특히 122-123. “산 자/자들의 땅” (사 38:11; 53:8; 렘 11:19; 겔 26:20; 32:23, 24, 25, 27, 32; 시 56:13; 116:9; 142:5; 욥 28:13)이라는 성전 신학적 표현에 관해서는 특히 F. Hartenstein, *Das Angesicht JHWHs: Studien zu seinem höfischen und kultischen Bedeutungshintergrund in den Psalmen und in Exodus 32-34*, FAT I/55 (Tübingen: Mohr Siebeck, 2008), 92-99를 보라.

67) 참조, H. Tita, *Gelübde als Bekenntnis*, 123.

68) 하나님, 성전/시온,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는 H. Spieckermann, “Der theologische Kosmos des Psalters”, 68-73에서 알 수 있듯이 JHWH-왕(시 93-100편), 그리고 특별히 시온 시편(시 46; 48; 76; 84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Ibid., 70). 특히 시 84편(고라 자손의 시 84-85, 87-88편 모음집 안에 있는)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이다.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의 시온 시편으로, 2-5절, 6-8절, 9-13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축복으로 끝나거나(5절과 12절) 시작한다(6절). 이 시편은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실존의 토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편에 관

한 가지 중간 결론을 내려보겠다: 시편 18:3-5; 30:1-3; 116:3-5, 13-15 등의 감사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스올과의 다양한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에서 삶에 이르는 극적인 여정을 되새긴다. 이러한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공간적, 시간적 차원의 얽힘이다. 이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은 두 공간과 두 시간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극복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험과 구원으로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 속에서 이중적인 존재를 경험한다. 이런 상반된 시간(과거/현재)과 공간(스올/성전) 경험의 얽힘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의 감사 축제 상황**이다. 이곳에서 죽음/삶의 경험이 극적으로 표현되며, 회중 가운데 공개적인 기도를 통해 재현된다. 감사의 노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기도는 억압받는 자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전환적 행위**인데,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즉 잃어버린(탄원)과 그리고 다시 얻는(찬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2.2.3. 다윗에서 시온으로 – 역사신학적인 면

크라츠(R. G. Kratz)⁶⁹⁾에 따르면, 시편 3-41; 42-72; 73-89; 90-106; 107-145 편⁷⁰⁾으로 구분된 다섯 권의 시편(41:14; 72:18-19; 89:53; 106:48의 결론부 찬송에 의해 구분됨)⁷¹⁾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이 나타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윤곽이 드러난다.”⁷²⁾

시편 41:13과 72:18-20의 처음 제1권, 제2권의 송영 형식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정시대로 이어지며, 왕권의 개인적인 측면(시 3-41편)과 왕권의

한 더 자세한 분석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라.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51–100*, 507-523 (E. Zenger); S.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JSOTSS 422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308-341, 특히 322-324를 보라.

69) 자세한 내용은 E. Zenger, *Buch der Psalmen* (주. 35), 354-356을 참고하라. 또한, H. Gese, *Die Entstehung der Büchereinteilung des Psalters*, H. Gese, *Vom Sinai zum Zion: Beiträge zur biblischen Theologie*, Beiträge zur Evangelischen Theologie 64 (München, Chr. Kaiser, 1974), 159-164를 참고하라.

70) 그것에 관해서는 앞에 있는 주. 35를 보라.

71) R. G. Kratz, “Die Tora Davids: Psalm 1 und die doxologische Fünfteilung des Psalters”, *ZTK* 93 (1996) 1-34, 특히 21-28. 참조, R.G. Kratz, *Die Gnade des täglichen Brots: Späte Psalmen auf dem Weg zum Vaterunser*, *ZTK* 89 (1992) 1-40, 특히 36-38.

72) R. G. Kratz, “Die Tora Davids”, 21. 참조,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ein Versuch”, 317, 주. 32. 그리고 J. Steinberg, *Die Ketuvim– ihr Aufbau und ihre Botschaft*, BBB 152 (Frankfurt a.M.: Philo, 2006), 222-271도 보라.

우주적 측면(시 42-72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메시아적”이고 왕다운 신학적 방식으로 성찰하는 시편 73-89편은 제3권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제1-2권과 제4-5권 사이의 “점점”에 위치하며 “쇠퇴/전환의 책”⁷³⁾으로 간주될 수 있고, 다윗 왕국,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성의 멸망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송영(시 106:48)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항복한 것을 탄식하고(시 106:27, 40-42),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과 모으는 것을 간구한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권의 확립으로부터 전개되어(시 2/3-41, 42-72편), 쇠퇴의 시대를 거쳐(시 73-89편), BCE 587년의 멸망으로 진행되는 전반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연상시킨다. 마지막 전환이 시편 107-145편과 함께 (그리고 시 146-150편의 할렐루야 찬송을 포함하여) 회복의 시대로 이끈다. 그 시대는 “시편 3-72편에 따라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과 시편 73-106편에 따라 잃어버린 것을 다른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다.”⁷⁴⁾ “역사-신학적 기본 구조”⁷⁵⁾가 아마도 시편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한 시대 안에서도 시대를 초월한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권 안에 있는 시편 44편 또는 시편 51:20-21은 역사신학적으로 읽을 때 597/587년 멸망과 그 이후 회복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관련된 구체적인 시대와 연결시킬 때 반대로 해석된다”거나 또는 **역사의 전형적 의미**로 이해한다.

각 개별 시대는 전체 역사 과정의 일부로서 항상 그 자체 안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사의 전형적 진행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진다. 말하자면 다른 시대와 동시에 존재한다. 역사의 맥락은 항상 역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용자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⁷⁶⁾

이와 같은 전형적 역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소위 시편의 “다윗화”⁷⁷⁾로도 알려져 있다. 열세 편(칠십인역으로는

73)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ein Versuch”, 309.

74) R. G. Kratz, “Die Tora Davids”, 23-24.

75)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ein Versuch”, 317, 주. 32.

76) R. G. Kratz, “Die Tora Davids”, 23.

77) 이에 관하여 아래 논문을 보라. N. Füglistner, “Die Verwendung und das Verständnis der Psalmen und des Psalters um die Zeitenwende”, J. Schreiner, ed., *Beiträge zur Psalmenforschung: Ps 2 und 22*, FzB 60 (Würzburg: Echter, 1988), 319-384, 특히, 368-371. 참조, N. Füglistner, “Die Verwendung des Psalters zur Zeit Jesu”, *BK* 47 (1992) 201-208, 특히 206-207; E. Ballhorn, “‘Um deines Knechtes David willen’ (Ps 132:10): Die Gestalt Davids im Psalter”, *Biblische Notizen* 76 (1995) 16-31; M. Kleer, “Der liebliche Sänger der Psalmen

열여섯 편)의 시편 표제들(시 3; 7; 18; 34; 51; 52; 54; 56; 57; 59; 60; 63; 142 편)에서 다윗은 삶의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회상한다.⁷⁸⁾ 여기에 이 메시아적 왕의 자격은 승리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고통을 받는 자이다. 이 시는 개인적 탄원시에 해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묘사는 전형적인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으로 받은 고통이 이상적-전형적인 것으로 극복되어 되어 있기 때문이다.⁷⁹⁾ 이런 식으로 시편은 “여호와 앞에서 삶의 갈등, 위기, 승리”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의 모델⁸⁰⁾이 되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보면 분명해진다. 고통에 대한 시편 22편의 묘사를 따른다면, 텔리취가 적절히 말했듯이, 다윗은

자신의 탄식과 함께 고통의 지극히 깊은 곳으로 깊이 내려간다. 그리고 희망과 함께 고통의 보상은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다. 다른 말로, 즉 비유적인 과장법으로 표현하자면, 아라비아어로 ‘무부슬가’, 즉 강렬한 색채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시적 언어는 샘족의 눈에는 흐릿하고 창백하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비유적 요소는 예언적 요소가 된다.⁸¹⁾

따라서 시편은 – 무엇보다 먼저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며, 편집에 의해 시편 2편과 연결되어 있다⁸²⁾ – 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토라에 대한 순종의 길, 즉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⁸³⁾을 추

Israels”: *Untersuchungen zu David als Dichter und Beter der Psalmen*, BBB 108 (Bodenheim: Philo, 1996), 그리고 클레어(M. Kleer)의 책에 있는 세이볼트(K. Seybold)의 기고논문을 보라.

78) 이에 관해서는 M. Millard,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FAT 9 (Tübingen: Mohr Siebeck, 1994), 127-135, 특히 251-254 (개요)를 보라, 더 나아가 M. Kleer, “*Der liebliche Sänger der Psalmen Israels*”, 87-118; J. M. Auwers,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137-151. 그리고 R. G. Kratz, “*Die Tora Davids*”, 18 주. 41에 언급된 문헌을 보라.

79) 개별적인/개인적인 것에서 전형/역할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전환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것은 시편이 현실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하여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말해준다. 스택은 개인적인 탄원시과 감사시에서 이 과정을 “크기”로 규정짓지만 “개인의 고통의 방식은 강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O. H. Steck, *Friedensvorstellungen im alten Jerusalem: Psalmen-Jesaja-Deuteriojesaja*, Theologische Studien, 112 (Zürich: TVZ, 1972), 36, 주. 84. 이에 관한 예들도 보라. *Ibid.*, 36-40.

80)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Psalter*, SBLDS 76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172, 이에 관해서는 기왕의 B. S. Childs, “*Psalms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ournal of Semitic Studies* 16 (1971) 137-150, 특히 148-149를 보라.

81) F. Delitzsch, *Die Psalmen*, 207.

82) 이에 관해서는 위의 ‘II.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를 보라.

83) 참조,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Psalter*, 143, 더 나아가 M. Kleer, “*Der liebliche*

구하는 원천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신학적 도식을 넘어서, 시편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제왕적이고 신정정치적 노선**(eine messianische und eine theokratische Linie)을 확인했다. 이 노선은 제1-3권과 제4-5권에서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인식될 수 있다.⁸⁴⁾ 그리고 두 관점이 때때로 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노선은 선형적인 사건 곡선을 형성한다. 왕의 신학 관점 또는 메시아적 관점은 제4-5권에서 메시아적 개념이 신정통치적 개념에 종속됨과 동시에 “전반적인 종말론적 관점”⁸⁵⁾에서 완성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론은 말미의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에 나타난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이해해야 한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토라(참조, 시 1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또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에 포함된 개별 텍스트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편이 쓰이고 사용된 상황과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시편에 대한 최근 연구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길링햄(S. Gillingham)⁸⁶⁾이 최근에 지적했듯이, 이것은 물론 사실의 전부가 아니다. 그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본적인 주제인 “토라”(시 1편 등)와 “다윗/메시아”(시 2편 등)에 더해 “시온”이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온 주제는 결말의 할렐루야 시편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마도 이미 시편 1:3의 물가에 심겨진 의인의 이미지 속에(3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암시는 시편 전체에 걸쳐 다양한 농도로 나타나 있으며,⁸⁷⁾ 특히 시온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강조된다. 베버(B. Weber)는 시온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그곳은 예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며, 예언은 거기서 나온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늘 왕국은 지상의 대표자와 대리인을 가지고 있다. 기도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구원의 응답이 오

Sänger der Psalmen Israels”, 125.

84) “제왕적” 시편은 시 2; 72; 89; 101; 110; 144편, “신권통치적” 시편은 시 8; 19; 29; 45-48; 93-100; 145; 146-150편. 이에 관해서 E. Zenger, “Das Buch der Psalmen”, 357-358의 개관을 보라.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스타이만스(H. U. Steymans)의 기고논문을 보라.

85) E. Zenger, “Das Buch der Psalmen”, 357.

86) 이에 관해서는 S.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331-333(시 1-2편과 146-150편에서의 시온 전통에 관해).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그녀의 기고 논문을 보라.

87) Ibid., 316.

는 곳이 그곳이다(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감사가 드러질 곳이다).⁸⁸⁾

시편 총 5권의 전체 구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독자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의 개별적 지점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단계에서, **경험한 재난과 구원에 대한 희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 구절들을 묵상한다.⁸⁹⁾ 이 믿음의 역사의 목표는 마지막 시편에서 “모든 호흡”(시 150:6)이라 일컬어지는 존재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우주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3. 시편의 결말(시 146-150편)

시편의 마감적인 시편 146-150편은 반복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할렐루야 시편 146-149편과 함께 종결부 찬양의 틀을 형성하는 시편 150편(6절)에서 말하고 있다.⁹⁰⁾ 이 본문은 1b-2절에 따라 하늘의 성소(שָׁמַיִם)⁹¹⁾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상의 성소(מִקְדָּשׁ)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묶고, 창조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함을 기념한다. 이 본문은 3-5절에 따라 ‘내부’(역자주, 지성소)에서 ‘외부’(역자주, 성소)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된다. 이 공간 이동은 아마도 예루살렘 제2성전의 상징적 지형, 즉 지성소의 중심에서 동심원적으로 점점 거룩함이 감소하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⁹²⁾

1	할렐루야	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 기도 처소로서 땅과 하늘 성소 창조와 역사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88) B. Weber, ““Herr, wie viele sind geworden meine Bedränger...” (Ps 3:2a)”, 250-251.

89) 참조, R. G. Kratz, “Die Tora Davids”, 27.

90) 종결하는 할렐루야 시 146-150편의 저작에 관해서는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101-150*, 807-810(E. Zenger)을 보라.

91) F. Hartenstein, ““Wach auf, Harfe und Leier, ich will wecken das Morgenrot” (Psalm 57:9)”, 118에 따르면 ‘라키아(שָׁמַיִם)’는 그것과 같은 하늘을 나타낸다. 그 위에는 여호와와 하늘 내부 성소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Ibid., 주. 55도 참조하라.

92) Ibid., 119(원문에서 강조, 현재 시 150편의 해석에 관해서는 특별히 E. Zenger, ““Aller Atem lobe JHWH!””, 565-579와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en 101-150*, 871-885(E. Zenger)를 보라.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u>으로</u> 찬양할지어다	성전 내부	} 악기들과 함께 잔치 플랜
4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안마당	
5	큰 소리 나는 제금 <u>으로</u>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 <u>으로</u> 찬양할지어다	성전의 영역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편	
	할렐루야	우주적 틀	

따라서, 시편 말미에서 탄원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전체적 흐름이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찬양으로 울려 퍼지며, 시편 1:2에서 “주야로” – 즉 언제나, 구원의 때(낮, 빛)와 재앙의 때(밤, 어둠) – 여호와와 의인들을 묵상하는 의인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오직 여호와와 의인들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도다
-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50편과 서문인 시편 1-2편 사이의 연관성은 두 가지 관찰에 의해 더욱더 지지를 받는다. 첫 번째 관찰은 두 곳에서 나타나는 **총체성**에 관한 언급과 관련이 있다. 시편 150:6의 ‘콜(לל)’이란 표현(“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시편 2:12b(“여호와께 피하

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의 언급과 일치한다. 시편 2:12의 “여호와께 피하는”(יִהְיֶה פָּנֶיךָ) 것은 뒤따르는 시편들, 특별히 “다윗의 시편”(시 5; 7; 11; 16; 17편 등)에 동일한 주제가 등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⁹³⁾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시편 3-41편; 51-72편; 그리고 138-144; 145편, 이렇게 세 부분의 시편을 “‘여호와께 피하는’과 함께 요약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다.⁹⁴⁾ 시편 1:1의 “복 있는 사람은...”과 시편 2:12b의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는 인클루시오를 형성한다.⁹⁵⁾ “여호와와 토라를 습득하는 것은 시편을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의 구체적인 실행이다.”⁹⁶⁾ 이런 실행은 시편 150:6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서 그 목표를 이룬다. 시편 1편에서 “의인”(vs. 악인)으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묘사된 하나님이 백성의 종말론적 실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시작된다.⁹⁷⁾ 따라서 의인의 축복(시 1:1a)으로 시작하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찬양으로 끝난다. 이 부르심에 이스라엘과 “호흡 있는 자마다”, 즉 모든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⁹⁸⁾

두 번째 관찰은 시편 1:2b의 토라 묵상(מָדַן, “중얼거리다, 암송하다”)⁹⁹⁾에서 사용된 언어의 요소와 관련이 있다(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0:6a의 “(말의) 호흡” 또는 “말할 수 있는 호흡”(נְשִׁמָּה)을 연결해 볼 때 언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말하는 상황 모두, 언어 능력을 갖추고 따라서 살아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여호와와 토라, 또는 직접적으로 그분 자신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시편 150:6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의 실존적 연결을 할 수 있는 인간 호흡의 언어적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호흡이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형태를 취할 때 가장 높은 완전성에 도달한다.¹⁰⁰⁾

93) 이에 관해서는 E. Zenger, “Der Psalter als Buch”, 38을 주. 95와 함께 보라(역자주, 실제 5:11; 7:1; 11:1; 16:1; 17:7에 2:12b와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94) Ibid., 38.

95) 이에 관해서는 위의 ‘2.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를 보라.

96) E. Zenger, “Der Psalter als Buch”, 38.

97) 참조, A. Lange, “Die Endgestalt des protomasoretischen Psalters und die Tora-weisheit: Zur Bedeutung der nichtessenischen Weisheitstexte aus Qumran für die Auslegung des protomasoretischen Psalters”, E.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BS 18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1998), 101-136, 특히 120.

98) 참조, E. Ballhorn, “Die gefährliche Doxologie”, 17, 그리고 J. L. Vesco, *Le psautier de David traduit et commenté*, t. I, Lectio Divina 210 (Paris: Cerf, 2006), 75.

99) 이에 관해서는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126-127을 보라.

100) E. Zenger, “‘Aller Atem lobe JHWH!’”, 571. 코흐(K. Koch)의 아래 논문의 제안을 이어받은 것이다. K. Koch, “Der Güter Gefährlichstes, die Sprache dem Menschen gegeben...”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우주적 찬양에서 인간의 행복은 완성된다. 시편이 그 서두에서 “의인의 길”(vs. 악인의 길)로서 그것을 제시하고, 또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의 전주곡으로서 시편 146:1b-2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토라를 조용히 묵상하는 의인(시 1:2)과 “모든 호흡”(시 150:6)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 이런 방식으로 시편의 “큰 집”과 작고 큰 시편 “방들”을 걸어가는 사람은 – 길을 거닐면서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시편을 생명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편의 모든 주제가 이렇게 연주된다. 시편 1편에 따르면, 이것이 토라가 된다. 의인을 억압하는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생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많은 탄식이 있다는 것, 억눌리는 것으로 인생이 경험된다는 것, 악과 죄의 구조가 우리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 그가 구원하신다는 것. 의인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 찬양이 이길 것(시 150편)¹⁰¹⁾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시편 전체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시편 1편이 “토라”라는 단어와 함께 그 용어에 부여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사라지지 않고 변형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전환되거나 오히려 더 훌륭하게 시편 제1-3권의 토라와 다윗-/제왕 주제에서 시편 제4-5권¹⁰²⁾의 새로운 주제로 관점이 이동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확장된다. 이 새로운 영역은 가난한 자의 구원자로서 종말론적 심판을 수행하시고(시 149:5-9)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시 150편)¹⁰³⁾ 여호와의 우주적 왕권이다.

Überlegungen zu Gen 2,7”,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238-247, 특히 245.

101) E. Ballhorn, “‘Glücklich der Mensch...’: Weisung und Gebrauchsanweisung für das Psalmenbuch”, *Pastoralblatt* (2003), 12-16, 특히 16.

102) 참조, J. M. Auwers,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123-133; E. Ballhorn, *Das Telos des Psalters*, 343. and M. Leuenberger,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40-67, 391-399.

103) 참조, E. Zenger, “‘Daß alles Fleisch den Namen seiner Heiligung segne’(Ps 145:21): Die

4. 말씀의 성전

결론적으로 시편은 다섯 권의 순서가 암시하는 일종의 서사적 사건 곡선 외에도 개별 시편과 그 시적 특성에 내재된 심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순례 여정” 구조와 관련이 있다.¹⁰⁴⁾ 시편을 이해할 때, 내러티브적 관점과 시적인 관점은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독서 방식과 기대로 독자를 이끈다.

첫 번째 관점은 시간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 관점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방향에 따라 텍스트의 전개를 파악한다. 두 번째 관점은 평면적이거나 공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 관점은 ‘동시화’를 통해 대규모 텍스트 안의 상호 관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자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더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¹⁰⁵⁾

시편의 이러한 시공간적 구조의 효과는 서두에서 언급한 “큰 집”의 은유와 연결될 수 있다.¹⁰⁶⁾ 그러나 시편의 “큰 집”은 돌로 만들어진 집이나 성전이 아니라, 말씀의 성전(*templum spiritual*, 즉 영적 성전)이다. 서론 시편 1-2편은 그 집의 넓은 “정문”(Hieronymus: *grandis porta*)이다.¹⁰⁷⁾ 결론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은 크게 울려 퍼지는 “마감석”이다. 이 “말씀의 성전”¹⁰⁸⁾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150편의 개별 시편과 그 안에 줄지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순례길들을 묵상하며 탄원에서 찬양에 이르기까지, 길고 힘든 순례의 여정을 지나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시온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의 구원은 개인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시편만이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하

Komposition Ps 145–150 als Anstoß zu einer christlich-jüdischen Psalmenhermeneutik”, *BZ* 41 (1997) 1-27, 특히 14-21. 그리고 B. Janowski, “Der barmherzige Richter: Zur Einheit von Gerechtigkeit und Barmherzigkeit im Gottesbild des alten Orients und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75-133, 특히 113-118을 보라.

104) 이에 관해서는 위의 ‘2.2. 신학적 순례 여정(제1-5권)’을 보라.

105) B. Weber,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ein Versuch”, 308(필자가 강조하고 싶다).

106) 이에 관해서는 위의 ‘1. 시편 “큰 집”’을 보라.

107) 이에 관해서는 위의 ‘2.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가 시작되는 전후의 내용을 보라.

108) 이 표현에 관해서는 위에 이미 인용한 R. G. Kratz, “Die Tora Davids”, 34; E. Zenger, “Der Psalter als Buch”, 47-48. 또 E. Zenger, *Psalmenforschung nach H. Gunkel und S. Mowinckel*, 434-435를 보라.

나눔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넓은 사랑이며(참조, 시 145:21; 150편),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 말하는 차원 높은 사랑이며(참조, 시 36; 104편),¹⁰⁹⁾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척도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이다(참조, 시 23:4aα; 88편). 인간의 실존과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두 탐구한 끝에 남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차원 높은 친밀함이다. 하나님은 시편 16편과 같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시편 23편¹¹⁰⁾처럼 뛰어난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여호와와 집에서”(6절)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

1 다윗의 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109) 시 36:6-10의 우주 은유에 관해서는 N. Lohfink, “Innenschau und Kosmos-mystik: Zu Psalm 36”, N. Lohfink, *Im Schatten deiner Flügel*, 172-187. 그리고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330-335를 보라.

110) 시 23편의 해석을 위해서는 일단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306-312를 보라. 시 15-24편의 하위 모음집 내에서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 책 안에 있는 브라운(W. P. Brown)의 기고문을 보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리로다

요약: 시편의 ‘건축적 기본 개념’은 “시편서 전체에서 주제들이 지향하고 있는 시공간적 차원들을 보여준다.”¹¹¹⁾ 시편의 차원들과 그들의 시적 및 소통적 특성들을 주의 깊게 탐구한다면, 시편/시편서의 신학 역시 더욱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¹²⁾ 필자는 건축가처럼 말씀의 성전으로 시편 전체의 그림을 제시했다. 성전으로서 시편의 시공간적 차원 제시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제어>(Keywords)

‘말씀의 성전’, 시편, 베른트 야노프스키, 신학적 건축, 거대한 집, 신학적 순례 여정.

Temple of Word, Psalms, Bernd Janowski, Theological Architecture, Big House, Theological Itinerary.

(투고 일자: 2024년 7월 12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11일)

111) K. Seybold, *Poetik der Psalmen*, 372. “시편의 건축적 기본 개념”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Ibid., 371-373을 보라.

112) 이에 관해서는 이 책에 있는 베버(B. Weber)의 기고논문도 보라.

<참고문헌>(References)

- Adam, K. P., *Der Königliche Held: Die Entsprechung von kämpfendem Gott und kämpfendem König in Psalm 18*, WMAN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Auwers, J. M., *La composition littéraire du psautier: Un état de la question*, Cahiers de la RB 46, Paris: Gabalda, 2000.
- Ballhorn, E., *Das Telos des Psalters: Der Text-zusammenhang des Vierten und Fünften Psalmenbuches (Ps 90–150)*, BBB 138, Berlin–Wien: Philo, 2004.
- Ballhorn, E., “Die gefährliche Doxologie: Eine Theologie des Gotteslobs in den Psalmen”, *Bibel und Liturgie* 77 (2004), 11-19.
- Ballhorn, E., “‘Glücklich der Mensch...’: Weisung und Gebrauchsanweisung für das Psalmenbuch”, *Pastoralblatt* (2003), 12-16.
- Ballhorn, E., “‘Um deines Knechtes David willen’ (Ps 132:10): Die Gestalt Davids im Psalter”, *Biblische Notizen* 76 (1995), 16-31.
- Ballhorn, E. and Steins, G., eds., *Der Bibelkanon in der Bibelauslegung: Methodenreflexionen und Beispielexegesen*, Stuttgart: Kohlhammer, 2007.
- Barbiero, G., *Das erste Psalmenbuch: Eine synchrone Analyse von salm 1–41*, ÖBS 1, Frankfurt a.M.– Berlin– Bern: Peter Lang, 1999.
- Barth, C., *Die Errettung vom Tode: Leben und Tod in den Klage- und Dankliedern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ed.,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7.
- Brown, W. P.,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2.
- Brueggemann, W., “Bounded by Obedience and Praise: The Psalms as Canon”, *JSOT* 50 (1991), 63-92.
- Busch, E., et. al., eds., *Calvin-Studienausgabe*, vol. 6: *The Psalm Commentary. A selec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 Childs, B.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ournal of Semitic Studies* 16 (1971), 137-150.
- Delitzsch, F., *Die Psalmen*, Leipzig: Dörflin & Franke, 1894; reprinted, Gießen: Brunnen, 2005.
- Eberhardt, G. D., *JHWH und die Unterwelt: Spuren einer Kompetenzausweitung JHWHs im Alten Testament*, FAT II/2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Ego, B., “Die Wasser der Gottesstadt: Zu einem Motiv der Zionstradition und seinen kosmologischen Implikationen”, B. Janowski and B. Ego, eds., *Das*

- biblische Weltbild und seine altorientalischen Kontexte*, FAT 32, Tübingen: Mohr Siebeck, 2001, 361-389.
- Füglister, N., “Die Verwendung und das Verständnis der Psalmen und des Psalters um die Zeitenwende”, J. Schreiner, ed., *Beiträge zur Psalmenforschung: Ps 2 und 22*, FzB 60, Würzburg: Echter, 1988, 319-384.
- Füglister, N., “Die Verwendung des Psalters zur Zeit Jesu”, *BK* 47 (1992), 201-208.
- Gese, H., “Die Entstehung der Büchereinteilung des Psalters”, H. Gese, *Vom Sinai zum Zion: Beiträge zur biblischen Theologie*, Beiträge zur Evangelischen Theologie 64, München: Chr. Kaiser, 1974, 159-164.
- Gillingham, S.,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JSOTSS 422,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308-341.
- Hartenstein, F., *Das Angesicht JHWHs: Studien zu seinem höfischen und kultischen Bedeutungshintergrund in den Psalmen und in Exodus 32–34*, FAT I/55,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Hartenstein, F., ““Der im Himmel thronet, lacht” (Ps 2:4): Psalm 2 im Wandel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r Kontexte”, D. Sänger, ed., *Gottessohn und Menschensohn: Exegetische Studien zu zwei Paradigmen biblischer Intertextualität*, Biblical-Theological Studies 67,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58-188.
- Hartenstein, F., ““Wach auf, Harfe und Leier, ich will wecken das Morgenrot”(Psalm 57:9)– Musikinstrumente als Medien des Gotteskontakt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M. Geiger and R. Kessler, eds., *Musik, Tanz und Gott. Tonsuren durch das Alte Testament*, SBS 2007,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7, 101-127.
- Hartenstein, F. and Janowski, B., “Psalmen/Psalters I - III”, *RGG* 4/6 (2003), 1761-1777.
- Hauge, M. R., *Between Sheol and Temple: Motif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I-Psalms*, JSOTSS 1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Hecke, P. Van, ed., *Metaphor in the Bible*, BETL 187, Leuven: Peeters, 2005.
- Hossfeld, F. L., “Die Metaphorisierung der Beziehung Israels zum Land im Früh-judentum und im Christentum”, F. Hahn, u.a., eds., *Zion–Ort der Begegnung*, FS. L. Klein, BBB 90, Bodenheim: Athenaem, 1993, 19-33.
- Hossfeld, F. L., “Von der Klage zum Lob– die Dynamik des Gebets in den”, *BK* 56 (2001), 16-20.
- Hossfeld, F. L. and Zenger, E., *Die Psalmen. I: Psalm 1–50*, NEB 29, Würzburg:

- Echter, 1993.
- Hossfeld, F. L. and Zenger, E., *Psalmen 51–100*, HTKAT, Freiburg–Basel–Wien: Herder, 2000.
- Hossfeld, F. L. and Zenger, E., *Psalmen 101–150*, HTKAT, Freiburg–Basel–Vienna: Herder, 2008.
- Janowski, B., “Dankbarkeit: Ein anthropologischer Grundbegriff im Spiegel der Toda-Psalmen”,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267–312.
- Janowski, B., “Das biblische Weltbild: Eine methodologische Skizze”, B. Janowski and B. Ego, eds., *Das biblische Weltbild und seine alt-orientalischen Kontexte*, FAT 32, Tübingen: Mohr Siebeck, 2001/2004, 3–26.
- Janowski, B., “De profundis: Tod und Leben in der Bildsprache der Psalmen”,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244–266.
- Janowski, B., “Der barmherzige Richter: Zur Einheit von Gerechtigkeit und Barmherzigkeit im Gottesbild des alten Orients und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Der Gott des Lebens*,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75–133.
- Janowski, B., “Der Gott Israels und die Toten: Eine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Skizze”, B. Janowski,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266–304.
- Janowski, B., “Die ‘Kleine Biblia’: Zur Bedeutung der Psalmen für eine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 Janowski, *Die rettende Gerechtigkeit*,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125–164.
- Janowski, B.,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Janowski, B.,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Psalm 1 als Tor zum Psalter”, B. Janowski,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99–218.
- Janowski, B. and Hartenstein, F., *Psalmen 1–50*, BKAT 15,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Janowski, B. and Liess, K., “Gerechtigkeit und Unsterblichkeit: Psalm 73 und die

- Frage nach dem ‘ewigen Leben’”, R. Hess and M. Leiner, eds., *Alles in allem: Eschatologische Anstöße*, FS. J. C. Janowsk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5, 69-92.
- Keel, O., *Altorientalische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Using the example of the Psal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Keel, O., *Das Recht der Bilder gesehen zu werden: Drei Fallstudien zur Methode der Interpretation altorientalischer Bilder*, OBO 122, Fribo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Keel, O. and Uehlinger, C., *Göttinnen, Götter und Gottessymbole: Neue Erkenntnisse zur Religionsgeschichte Kanaans und Israels aufgrund bislang unerschlossener ikonographischer Quellen*, QD 134, Freiburg-Basel-Vienna: Herder, 2001.
- Kleer, M., “*Der liebliche Sänger der Psalmen Israels*”: *Untersuchungen zu David als Dichter und Beter der Psalmen*, BBB 108, Bodenheim: Philo, 1996.
- Koch, K., “Der Güter Gefährlichstes, die Sprache dem Menschen gegeben... Überlegungen zu Gen 2,7”,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238-247.
- Kratz, R. G., “Die Gnade des täglichen Brots: Späte Psalmen auf dem Weg zum Vaterunser”, *ZTK* 89 (1992), 1-40.
- Kratz, R. G., “Die Tora Davids: Psalm 1 und die doxologische Fünfteilung des Psalters”, *ZTK* 93 (1996), 1-34.
- Lange, A., “Die Endgestalt des protomasoretischen Psalters und die Tora-weisheit: Zur Bedeutung der nichtessenischen Weisheitstexte aus Qumran für die Auslegung des protomasoretischen Psalters”, E.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BS 18, Freiburg-Basel-Wien: Herder, 1998, 101-136.
- Leuenberger, M., *Konzeptionen des Königtums Gottes im Psalter: Untersuchungen zu Komposition und Redaktion der theokratischen Bücher IV-V im Psalter*, ATANT 83, Zürich: TVZ, 2004.
- Liess, K., *Der Weg des Lebens: Psalm 16 und das Lebens- und Todesverständnis der Individualpsalmen*, FAT II/5,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Liess, K., ““Hast du die Tore der Finsternis gesehen?” (Ijob 38,17): Zur Lokalisierung des Totenreiches im Alten Testament”, A. Berlejung and B. Janowski, eds.,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 ikonographische Aspekte*, FAT I/64, Tübingen: Mohr Siebeck, 2009, 397-422.
- Lohfink, N., “Der Psalter und die christliche Meditation: Die Bedeutung der Endredaktion für das Verständnis der Psalmen”, *BK* 47 (1992), 195-200.
- Lohfink, N., “Die Einsamkeit des Gerechten: Zu Psalm 1”, N. Lohfink, *Im Schatten deiner Flügel: Große Bibeltexte neu erschlossen*, Freiburg–Basel–Wien: Herder, 1999, 163-171.
- Lohfink, N., “Innenschau und Kosmos-mystik: Zu Psalm 36”, N. Lohfink, *Im Schatten deiner Flügel: Große Bibeltexte neu erschlossen*, Freiburg–Basel–Wien: Herder, 1999, 172-187.
- Lohfink, N., “Psalmengebet und Psalterredaktion”, *Archiv für Liturgiewissenschaft* 34 (1992), 1-22.
- Luther, M., “Zweite Vorrede auf den Psalter” (1528), H. Bornkamm, ed., *Luthers Vorreden zur Bibel*, Frankfurt aM: Insel, 1983, 64-69.
- Markschies, C., “‘Ich aber vertraue auf dich, Herr!’: Vertrauensäußerungen als Grundmotiv in den Klageliedern des Einzelnen”, *ZAW* 103 (1991), 386-398.
- Mccann, J. C.,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P. W. Flint and P. D. Mille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 99, Leiden–Boston: Brill (2005), 340-348.
- Millard, M.,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FAT 9, Tübingen: Mohr Siebeck, 1994.
- Millard, M., “Die ‘Mitte des Psalters’: Ein möglicher Ansatz einer Theologie der Hebräischen Bibel”, E. Ballhorn and G. Steins, eds., *Der Bibelkanon in der Bibelauslegung: Methodenreflexionen und Beispielexegesen*, Stuttgart: Kohlhammer, 2007, 252-260.
- Reemts, Chr., *Schriftauslegung: Die Psalmen bei den Kirchenväter*, New Stuttgart Commentary, Old Testament 33/6, Stuttgart: Catholic Bible Work, 2000.
- Schmid, J. H., “Psalm 1 als Tor zur Tora JHWHs: Wie Ps 1 (und Ps 2) den Psalter an den Pentateuch anschließt”, *SJOT* 21 (2007), 179-207.
- Schwarz, R., *Calvin’s life’s work in his letter*, vol. 2, Tübingen: Mohr Siebeck, 1909.
- Seven, H. J., *Ausgestreckt nach dem, was vor mir ist: Geistliche Texte von Origenes bis Johannes Climacus*, Trier: Paulinus, 1998.
- Seybold, K., *Poetik der Psalmen*, Stuttgart: Kohlhammer, 2003.

- Spieckermann, H., “Der theologische Kosmos des Psalters”, *Berliner Theologische Zeitschrift* 21 (2004), 61-79.
- Steck, O. H., *Friedensvorstellungen im alten Jerusalem: Psalmen-Jesaja-Deuterjesaja*, Theologische Studien 112, Zürich: TVZ, 1972.
- Steinberg, J., *Die Ketuvim- ihr Aufbau und ihre Botschaft*, BBB 152, Frankfurt a.M.: Philo, 2006.
- Tita, H., *Gelübde als Bekenntnis: Eine Studie zu den Gelübden im Alten Testament*, OBO 181, Fribo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Vesco, J. L., *Le psautier de David traduit et commenté*, t. I, Lectio Divina 210, Paris: Cerf, 2006.
-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vol. I, Munich: Chr. Kaiser, 1992.
- Wagner, A., “Der Parallelismus membrorum zwischen poetischer Form und Denkfigur”, A. Wagner, ed., *Parallelismus membrorum*, OBO 224, Fribourg: Academic Pres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26.
- Weber, B., “Der Beitrag von Psalm 1 zu einer ‘Theologie der Schrift’”, *Jahrbuch für Evangelikale Theologie* 20 (2006), 83-113.
- Weber, B., “‘Herr, wie viele sind geworden meine Bedränger...’ (Ps 3:2a): Psalm 1 –3 als Ouvertüre des Psalter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Psalm 3 und seinem Präsk”, E. Ballhorn and G. Steins, eds., *Der Bibelkanon in der Bibelauslegung: Methodenreflexionen und Beispielsexegesen*, Stuttgart: Kohlhammer, 2007, 231- 251.
- Weber, B., *Psalm 1 und seine Funktion der Einweisung*, FS. J. H. Schmid, Riehen-Basel: arteMedia, 2005.
- Weber, B., “Psalm 78 als ‘Mitte’ des Psalters?– ein Versuch”, *Biblica* 88 (2007), 305-325.
- Westermann, C., “Die Rolle der Klage in d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C. Westermann,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Gesammelte Studien II*, Munich: Chr. Kaiser, 1974, 250-268.
- Willis, J. T., “Psalm 1– An Entity”, *ZAW* 91 (1979), 381-401.
-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Psalter*, SBLDS 76,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Zenger, E., “‘Aller Atem lobe JHWH!': Anthropologische Perspektiven im Hallel Ps

- 146–150”, M. Bauks, K. Liess, and P. Riede, eds., *Was ist der Mensch, daß du seiner gedenkst? (Psalm 8,5): Aspekte einer theologischen Anthropologie*, FS. B. Janowski,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565-579.
- Zenger, E., “Das Buch der Psalmen”,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ohlhammer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2008, 348- 370.
- Zenger, E., “‘Daß alles Fleisch den Namen seiner Heiligung segne’(Ps 145:21): Die Komposition Ps 145–150 als Anstoß zu einer christlich-jüdischen Psalmenhermeneutik”, *BZ* 41 (1997), 1-27.
- Zenger, E., “Der Psalter als Buch: Beobachtungen zu seiner Entstehung, Komposition und Funktion”, E.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BS 18, Freiburg–Basel–Wien: Herder, 1998, 1-57.
- Zenger, E., *Psalmenforschung nach H. Gunkel und S. Mowinckel*, VTS 80, Leiden-Boston– Köln: Brill, 2000, 399-435.

<초록>

말씀의 성전 — 시편의 신학적 구조에 관하여 —

이 논문은 시편의 복잡한 구조와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시편의 구조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편의 ‘건축적 기본 개념’은 시편 전체에서 주제들이 지향하고 있는 시공간적 차원들을 보여준다. 시편의 차원들과 그들의 시적 및 소통적 특성들을 주의 깊게 탐구한다면, 시편의 신학 역시 더욱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건축가처럼 말씀의 성전으로 시편 전체의 그림을 제시했다. 성전으로서 시편의 시공간적 차원 제시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편 텍스트의 세계는 시공간적인 의미를 가지며, 비유, 상징, 은유 등을 사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이다. 시편에서 생명, 왕국, 성전은 나무, 보좌, 산이라는 구체적인 상징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시편의 신학적 구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인간학(탄원/찬양), 우주론(스울/성전), 역사 신학(다윗/시온)의 예를 살펴본다. 이들은 서로 다른 주제적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나 모티프에서 서로 겹치거나 서로 유사점을 공유한다.

시편은 “큰 집”이다. 그러나 이는 돌로 만들어진 집이나 성전이 아니라, 말씀의 성전이다. 서론인 시편 1-2편은 그 집의 “대문”이다. 또 결론인 할렐루야 시편 146-150편은 성전의 “마감석”이다. 시편서는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순서가 암시하는 일종의 서사적 사건 곡선이 있다. 시편을 이해할 때, 서사적 관점과 시적인 관점은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3권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순례길에서 제1, 2권과 제4, 5권을 연결하는 접합부이다.

시편은 “순례 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150편의 개별 시편과 그 안에 줄지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순례길들을 묵상하며 탄원에서 찬양에 이르기까지, 길고 힘든 순례의 여정을 지나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시온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의 구원은 개인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시편을 통해 인간의 실존과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두 탐구한 끝에 남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차원 높은 친밀함이다.